

경배와 찬양	임재 /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 끝 없는 사랑 / 주님은 신실하고 / 주만 의지해 / 나는 찬양하라	다같이
기도		신승윤
성경봉독	전 3:11-14, 99, 12:13	전혜나
말씀	전도자의 깨달음, 일상의 기쁨과 지혜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소원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 응답 찬양

###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 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 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 전도자의 깨달음, 일상의 기쁨과 지혜 (전 3:11-14, 9:9, 12:13)

3:11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12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13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14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9:9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인생에서 네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12:13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씀인데, 대명사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평생을 살아본 결과,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출세도, 재물도, 쾌락도, 수고함도,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왔던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것은 영원히 흐르는 시간 앞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the great equalizer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헛됨은 전도서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헛됨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도 함께 공존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너무 허무하게만 보는 것은 세상의 한 쪽 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귀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혼재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해해 보려 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3:11b) 솔로몬은 세상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스터리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하게 하시나?' 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는 두 가지 지혜를 깨닫는데, 하나는 세상이 미스터리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전 3:14b)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일까를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 더 나아가 지혜서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그 첫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의미있는 삶' 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솔로몬은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조차도 죽음과 세상의 불의를 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래도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고백합니다. (7장, 8장, 10장) 그런데,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잠언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는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지혜가 곧 하나님이요, 지혜를 따르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 12:13) 즉,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Q: 우리는 왜 신앙을 갖는가? 세상의 잘됨?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번째로 솔로몬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 고 외칩니다. 세상의 헛됨을 깊게 느낀 솔로몬이찾은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일상' 이었습니다. '오늘' 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기업입니다.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전 9:9)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소셜로 만나서 함께 나누는 일상들,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일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24시간을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상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살도록 노력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 목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이 세상이 헛되다 or 가치있다'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2.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세상의 잘됨 or 하나님을 사랑해서'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나요?
3.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솔로몬의 외침이 내겐 어떻게 들리시나요? 새롭게 결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 파송 찬양

###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오  
 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제 49권 25호  
**DEC 5**  
**2021**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 첫주 제외)
정기 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 am
토요 무릎 기도회	토 6:30 am

#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이스티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f	AKPC 청년부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www.instagram.com/akpc_psalm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주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한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새가족 교육 수료

안병영, 최지연

### 금요기도모임

금요일 7시에 청년부 예배실에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성례식 및 성찬

다음주(12/12) 2부예배 시간에는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청년 예배시간에 있습니다. (온라인/현장 동시에)  
현장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찬 패키지를 픽업하여 준비하시거나(12/11(토)  
오후 34시), 픽업이 불가능한 경우 각자 성찬 빵과 포도즙을 준비해주세요.

### 목장 모임 방학

12/19~1/9 동안 공식적인 목장모임은 쉽니다.

### 12월 예배 안내

- 12/19 (주일) : 성탄절 온가족 연합 예배, 10시 (청년부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12/24 : 성탄 전야 예배, 오후 7시 30분
- 12/31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

### 성탄바구니

- Treaty Oaks (49 가정)에 전달됩니다
-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탄 바구니"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 및 전달 : 새가족 목장위원회, 12/20(월) 예정

### 청년부 2022년 상반기 수련회

-1/16~17, 교회에서

### 생명의 삶 12월호 판매 (권당 5불)

### 주일학교교사모집

영유아부 : 교사, 자원봉사자(아이 돌봄) 모집 (문의 이희정 전도사)  
유치부 : 교사 모집 (문의:곽은희 전도사)